

통증으로 알아보는 자궁질환

산부인과에는 임신이나 출혈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복부 통증이나 골반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통증의 시기에 따라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생리기간 중의 통증

건강한 여성은 초경이후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기간 중 반복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등의 자궁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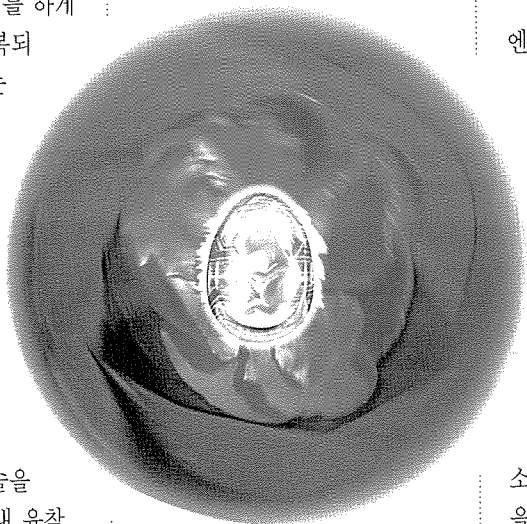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난소의 혹(종양)의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부인과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이다. 또 이전에 산부인과적 수술을 많이 한 경우에는 골반내 유착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자궁내 피임장치(루프)로 인해 생리통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생리통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위와 같은 질환이 다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 부인과적 진찰이나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생리기간과 관련 없이 통증이 있는 경우

급성통증이라면 우선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염 등과 같은 여성

생식기의 염증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난소난관 농양이 있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발열과 함께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염증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난소의 종양이 있거나 난소의 혹이 꼬여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요한다.

자궁경부암, 부인암(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질암, 외음부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질 출혈과 함께 하복부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부인과 초음파검사나 자궁암검사와 같은 부인과적 기본검사는 필수적이다.

급성 통증

급성통증은 자궁내막염, 골반염, 나팔관-난소 농양 등 염증 질환 외에 난소의 물혹이나 종양이 파열되거나 꼬여서 생기는 경우도 제법 많다. 난소에 종양이 생기면 그 무게 때문에 몇마퀴 뒤틀려 허혈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

우측 난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급성맹장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반복적인 통증은 배란통이나 생리통에서 흔하다.

만성 통증

만성 하복부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자궁내막증. 이 질환은 자궁의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을 파고 들어가거나 자궁 바깥쪽 난소·나팔관 등에 달라붙어 통증을 일으킨다.

생리 때와 부부관계시 통증이 심하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궁질환의 치료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성 질환의 경우에는 대개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적인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된다. 결론

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는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야 한다.

부인과 질환 정기검진 리스트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인과 질환 정기검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산부인과를 가야하는 부끄러움과 막상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이 안전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의 종류와 검사 방법, 검사시기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자궁경부암

흔히 자궁암 검사라 함은 세포진 검사(PAP smear)로서,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간편하게 실시하는 세포진 검사는 실제로는 비정상이지만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약 30~40%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다.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세포진 검사와 함께 질확대경 검사 또는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를 정기 검진시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정기검진은 매 6개월 마다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나, 40세 미만의 여성으로 세포진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1년 마다 검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40세 이상의 여성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 받는 것이 좋다.

자궁 내막암

자궁경부암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자궁 내막암은 폐경기 이전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폐경 이전이라도 과도한 자궁 출혈이나 불규칙적인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 내막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폐경 이후에 내막암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폐경 이후의 여성은 호르몬 치료의 시작 전에 반드시 자궁 내막암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인 내막암 검사가 필요하다.

난소암

난소암의 조기 진단은 현대 의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야 중 하나다. 난소암에 대한 정기 검진 스케줄은 아직 없으며, 부인과 검진 시 난소에 종양이 만져질 경우, 질식 초음파 검사로 양성 종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며, 난소암이 의심될 경우 CA-125 암표식자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CA-125 검사는 위음성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뼈의 구성성분 중 칼슘이 소실되고, 뼈 속에 구멍이 많아짐으로서 골밀도가 저하되어 가벼운 외상으로도 쉽게 골절에 이른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기적인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 난소절제술로 조기 폐경된 분
- 부갑상선 또는 갑상선 기능 항

진증, 당뇨병이 있는 분

- 가족 중 골다공증 환자가 있거나, 골절을 경험한 분
- 요통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분
- 위장 장애 등으로 오랜 동안 영양섭취가 부족한 분
-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지병이나 수술로 오랫동안 누워계신 분
- 부신 피질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한 분
- 음주와 흡연이 과다한 분

유방암

유방암은 자궁경부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여성 질환으로서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방암 검사가 필요하다.

- 유방의 종괴 또는 응어리가 있는 경우
- 유즙의 과다나 출혈성인 경우
- 유방의 통증이나 쑤시는 경우
-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
- 불임이거나 출산 경력이 적은 경우
- 첫 출산이 30세를 넘는 경우
- 남보다 일찍 초경이 있는 경우
- 경구 피임약을 1년 이상 복용한 경우
- 유방 종괴를 수술한 여성
- 유방확대 수술이나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
- 이전 유방 촬영상 경미한 이상이 있는 경우
- 결혼하지 않은 여성 

김용민 ·

포천중문의대 강남차병원 신부 인과 교수